

해를 숨기기 위한 설치

《김민수, 임정수: 해의 바탕》(킵인터치 서울, 2019.5.16.-2019.6.4.) 리뷰

이은지

먼저 공간의 시작과 끝 코너를 자주색 페인트로 칠하는 것으로 설치를 시작한다. 입구에서 가까운 벽 코너에는 두 벽이 만나는 경계를 중간으로 삼아 완전한 대칭은 아닌 호리병 같은 모양을 만든다. 반대편 코너의 오른쪽은 직선에 가깝게 떨어지고, 왼쪽은 곡선으로 오목하게 들어갔다 볼록하게 나오는 조금 넓은 추상적인 형상이 보이도록 칠한다. 벽에 칠해진 두 몸체가 바닥에서도 서로를 향하도록 한다. 바닥에 깔릴 천은 벽색보다 밝은색으로 선택한다. 그래야 이곳이 입체적 움직임의 포착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좌대 역할을 할 임정수의 작품들을 먼저 놓는다. 보라색 정방형 프레임, 벽 중간 길이의 직육면체 프레임 좌대 두 개, 높이가 낮지만 넓은 보라색 직육면체 프레임 좌대가 합판을 받치고 있는 형태의 책상 두 개, 흰 의자 같은 좌대 세 개, 모니터를 둘 보라색 좌대 하나, 벽 길이만큼 길고 바퀴가 달린 보라색 가벽 프레임 하나, 황톳빛의 낮은 이동식 가벽 하나, 반투명한 비단을 덮은 ‘ㄱ’자 모양의 길고 좁은 가벽 하나와 투명한 비단을 덮은 같은 모양의 가벽 하나. 단순한 뼈대 같으면서도 작품의 바탕이 되기도 할, 그러면서도 관객들의 움직임과 틈을 만들어낼 이들을 먼저 공간에 두어야 한다.

입구 쪽 자주색 경계에 프레임과 좌대를 배치한다. 둥근 모양의 경계를 따라 시선의 이동이 부드럽기를 바란다. 그만큼 작품 간 틈을 넓히지 않도록 한다. 책상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얼핏 바닥에 길게 깔린 천의 넓이 정도 된다. 바닥 끝부분에 걸쳐 책상을 둔다. 책상의 높이를 기준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좌대를 벽 쪽으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벽으로 시선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렬로 배치된 책상과 직육면체 좌대의 높이 차이만큼, 좌대보다 높게 보라색 정방형 프레임을 벽에 건다. 이 프레임은 흰 벽과 자주색 벽 사이 경계에 귀퉁이를 걸쳐 책상에서 좌대로 옮겨진 시선이 그다음 오른쪽 자주색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왼편인 흰 쪽으로 가야 하는지 선택하도록 만든다.

반대편 벽은 흰색과 자주색 간의 굴곡진 경계처럼 작품의 간격을 넓혀 비교적 크고 빠른 움직임을 유도한다. 자주색과 흰색은 서로의 바탕이자 형상이다. 희미한 막이 드리운 얇은 가벽은 이런 상대적인 둘의 관계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

영상은 동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멈추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으려 한다. 여기에서 영상 모니터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커다란 창문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이 해를 등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영상을 받쳐줄 좌대를 지금 서 있는 창문 쪽에 놓는다. 이 보라색 받침은 흰색 의자에 앉아서 영상을 볼 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도록

제작되었다. 흰 의자는 자주색 공간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 아래에 카키색 천을 그림자처럼 깔아주면 의자는 자주색을 바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서도 관객이 앉아서 영상을 보면, 그 순간 의자는 그 사람의 틈이자 여백의 하얀색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 면은 투명하고 다른 한 면은 불투명한 ‘ㄱ’자 가벽과 흰 의자 그리고 모니터 좌대 사이사이에 좌대 하나와 가벽 하나를 위치시킨다. 그러면 큰 가벽 하나가 남는데, 이 가벽을 창문 사이 기둥 앞에 위치시킨다. 창 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기둥의 한쪽 귀퉁이에 거의 맞도록 배치한다. 그러면 항상 달라지는 바깥 풍경을 배경으로 두면서 바닥에서부터 기둥, 그리고 가벽까지의 시선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임정수의 영상 속 조각들(스틸 사진)과 영상 속에서 사용된 천과 조각인 <흔적들>, 그리고 김민수의 드로잉과 페인팅 조각들을 놓는다. 최대한 두 작가의 작업이 뒤섞여 보이도록 배치하려 한다.

먼저, 전시장 입구 쪽 코너에서는 시선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천천히 이동하도록 한다. 이곳은 각자가 경험하는 가장 높고 낮은 것에 대한 흔적들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머리가 위, 발은 아래이지만 머리가 낮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반대로 발도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듯이, 두 작가의 형태만 남은 작품들은 의외의 위치에서의 관계를 통해 익숙하거나 생소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임정수의 발에 대한 흔적은 위쪽에 걸고, 김민수의 발이 들어간 장면은 아래쪽에 배치한다. 위를 바라보는 얼굴이 그려진 김민수의 작품은 가장 위에 걸고, 임정수가 박제한 것들 중 가장 윗부분인 귀의 흔적은 가장 아래인 바닥에 놓는다.

이 정도로 배치한 상태에서 반대편 코너를 본다. 여기에는 새와 손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김민수의 페인팅을 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듯 이 작품 속 새와 손 사이의 관계 또한 모호하다. 질감도 없이 껍데기만 그려져 형태만으로 앞에 있는 새가 중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손은 배경일 뿐인지, 아니면 새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손의 제스처가 중요한 것인지, 손이 새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작품의 옆면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임정수의 작업인 ‘ㄱ’자 모양의 좌대 옆면의 파란색과 비슷해 보인다. 이 둘은 관계가 있는 작품인가? 우연인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여기에는 추상적인 형체가 담긴 작품들을 배치하기로 한다.

바깥 풍경과 함께 보이는 기둥과 가벽에는 바깥 풍경에서 포착된 듯한 장면을 담은 김민수의 페인팅들과 임정수의 작품들을 뒤섞어 왼쪽 모니터에서부터 의자, 바닥, 기둥 그리고 가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이 작품들은 바깥의 상황에 따라 해처럼 되기도, 바탕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의자를 반대 벽 쪽에 놓는다.

남은 공간, 작품과 벽 사이 틈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시선 이동할 수 있도록 작품들을 배치한다.

설치가 끝났다.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전시장을 바라본다. 빛이 반사되어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떤 형체들이 늘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사이에 내가 보인다.